

《박소촌화》의 서사방식 연구

하 미 경*

차 례

- | | |
|-----------------------|----------------------|
| I. 들머리 | 3.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서술 |
| II. 《박소촌화》의 서사방식 | III. 《박소촌화》의 야담사적 의의 |
| 1. 선명한 갈등구조의 부각 | IV. 마무리 |
| 2. 다양한 삽화의 나열과 유기적 합성 | |

I. 들머리

《박소촌화》¹⁾는 敏齋 李東允(1727~1809)이 저술한 야담집으로 그 저작시기는 대략 저자의 나이 70세를 전후한 1789~1795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소촌화》에 대해서는 『규장각 소장 어문학자료』에서 그 성격을 간략히 소개한 이후,²⁾ 그 저작자와 저작연대,³⁾ 사상과 저작동인,⁴⁾ 텍스트 생성과정⁵⁾ 등

* 부산대 국문과 박사수료

1) 이 글에서 텍스트로 삼은 《박소촌화》는 필사본 3冊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이다.

2)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어문학자료 - 문학편 해설Ⅱ』(태학사, 2001), 117쪽.

3) 정준식, 「《박소촌화》의 저자와 저작연대」, 『어문연구』 39집(어문연구학회, 2002)

4) 이병직, 「李東允의 사상과 《樸素村話》의 저작 動因」, 『문창어문논집』 39집(문창어문학회, 2002.)

이 밝혀짐으로써 연구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박소촌화》가 편찬된 18세기 말은 이미 다양한 야담집들이 나오면서 조선 후기의 변화된 현실을 역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서사양식으로서의 야담이 그 장르적 발전을 모색해가던 시기였다. 19세기 야담집들이 대체로 문헌 전승·수용이 주가 되며 상당히 세련되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데 비해, 《박소촌화》가 나온 18세기의 야담집들은 저자가 주변에서 다양한 경로로 건문한 많은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판의 상황까지 그대로 수용해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다양한 원천에서 비롯된 이야기거리들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는가를 살피는 작업은, 조선후기 변동하는 현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서사양식의 형성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시 이야기판에서 이야기되던 이야기거리들을 짐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여기서는 전대 혹은 《박소촌화》와 거의 동시대에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문헌들에 실린 유화들을 대상으로 삼아 《박소촌화》에 실린 이야기가 서사구조 및 서술방식 면에서 전대 혹은 당대문헌에 실린 단형서사물들과 비교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8세기 새로운 단형서사양식이 형성돼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박소촌화》가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박소촌화》의 서사 방식

1. 선명한 갈등구조의 부각

《박소촌화》에 수록된 이야기는 전대 혹은 당대의 다른 이야기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갈등구조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5) 조선옥, 「《박소촌화》의 텍스트 생성에 관한 연구」, 『문창어문논집』 39집(문창어문학회, 2002).

《박소촌화》 소재 이야기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하게 되고, 그 해결 과정에서 갈등과 대결을 강조하게 되며, 결말처리 역시 승패의 갈림이 분명하며 패자에 대한 처벌은 극단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다른 문헌에 실린 이야기들이 대체로 우연한 상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갈등이 발생하는 데 비해, 《박소촌화》 소재 이야기들은 대립하는 두 집단의 모습을 분명하게 그림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는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두 집단의 대립이 분명하다보니 해결 과정 또한 대결이 좀더 두드러지게 그려지며, 그 결과 또한 승패가 분명하게 그려진다. 이는 <고청 서기 이야기>(1권 19화)⁶⁾, <동동곡 이야기>(1-34), <진주목사 아들 이야기>(3-65), <가팔 이야기>(3-171), <강감찬의 호랑이 퇴치 이야기>(3-180), <장자못 이야기>(3-181) 등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박소촌화》 소재 이야기의 갈등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고청 서기 이야기>(1-19)는 조선시대 중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학문이 뛰어나서 여러 명사들과 어울린 고청 서기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어릴 때 세의 움직임과 보고 자연의 이치를 깨우친 이야기,⁷⁾ 주인공의 갈등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사위가 될 심충겸의 간절한 설득으로 목숨을 건지고 이후 심충겸이 관동의 수령이 되었을 때 심충겸을 노비의 모습으로 찾아가니 심충겸이 노비문권을 불태우고 신분을 해방시켜준 이야기와 사후 공암서원에 배향되고 영조대에 지평에 추증되었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두 번째 에피소드인 주인공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는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인데, 서기와 주인의 갈등 및 서기를 구해내기 위한 사위

6) 《박소촌화》에는 각 이야기들에 제목이 없는 대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는 ○표가 표시되어 있어 구분하기가 쉽다.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이야기의 제목은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임의로 붙였다. 그리고, 이후 《박소촌화》소재 작품의 출처는 제목 앞에 (수록 권수 - 이야기 순번)의 형식으로 붙이며 따로 출처를 언급하지는 않기로 한다. 또, 인용문의 경우에도 수록권수와 쪽만을 밝히기로 한다.

7) 이 에피소드는 《파수록》에 가장 먼저 수록된 이후, 《동패낙송》, 《동패》, 《청야담수》등에 실렸는데, 전체적인 줄거리 면에서는 각 문헌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심충겸의 간절한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서기와 주인의 갈등은 이미 《매옹한록》⁸⁾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매옹한록》에서는 갈등의 원인도 ‘어떤 일’이라고만 나올 뿐 분명하게 그려지지 않으며 갈등과정도 ‘매를 쳐서 벌하였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나타나고, 해결 방법도 ‘다음날 많은 문사들이 서기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니 주인이 서기의 재주를 깨닫고 아들의 교육을 부탁하는’⁹⁾ 식으로 별다른 갈등과 대결 없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즉, 《매옹한록》의 이야기는 비록 주인과 서기의 갈등을 그리고는 있으나 실상 그 이야기의 목적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벌을 받자 많은 문사들이 찾아올 정도로 서기의 학덕이 뛰어났음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지 두 사람간에 일어난 갈등 자체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박소촌화》에서는 서기의 인품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주인과 서기의 치열한 갈등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 이 이야기는 갈등의 원인이 포악한 성품을 지닌 여주인이 서기의 노비답지 않은 행동들을 노비의 분수를 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¹⁰⁾ 신분 사회에서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비범한 능력은 곧 신분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필연적으로 지배집단의 입장에서는 그를 위협하게 받아들이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박소촌화》의 서기 이야기는 주인과 서기의 갈등이 서기의 비범한 재능 때문임을 분명하게 그림으로써 능력과 신분의 모순이 두 집단의 갈등을 일으키는 필연적인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 또한 훨씬 치밀하고 흥미롭다. 사위인 심충겸은 서기를 구하기 위해 파혼을 하겠다고까지 말하며 이에 대해 장모가 될 여주인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다 결국 사위의 간절한 설득에 어쩔 수 없이 서기를 풀어주게 된다. 그리고 갈등이 해결된 결과 사위는 단지 처벌을 받고 있는 서기를 풀어주고 목숨을 구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소매 속에서 유자의 관을 꺼

8) 《매옹한록》, 동국대학교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헌설화집요』8(태학사, 1991), 493쪽.

9) 嘗以事命杖之……侍婢曰“客爲見徐奴來矣”夫人招問之。起對曰“昔嘗納拜於士大夫 聞小人之受罪 或賜臨訪矣”夫人曰“然則汝識字乎”對曰“畧解文字耳”夫人曰“汝教兒讀書”(《매옹한록》493쪽)

10) 嫉其犯分，捉來笞擊而囚之(권1, 16쪽)

내어 그에게 씌워준다. 신분제도 속에서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옷을 양반이 노비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그 노비의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서기의 능력을 그만큼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박소촌화》에 실린 <고칭 서기의 이야기>는 신분제 사회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닌 노비가 겪을 수 밖에 없는 주인과 노비의 갈등과 그 절절한 해결과정, 극적인 반전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야담집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감찬의 호랑이 퇴치 이야기>(3-180) 또한 갈등구조가 선명히 부각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고을의 백성들이 호환을 자주 입자 강감찬이 호랑이를 퇴치했다는 내용으로 구전이나 문헌 기록에 자주 나타나는데, 문헌상으로는 《용재총화》¹¹⁾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문헌이나 구전은 이 이야기와 거의 차이가 없다.¹²⁾ 그런데 호환이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나 그 해결 과정과 결과 면에서 《박소촌화》의 강감찬 이야기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는 《용재총화》 소재 강감찬 이야기와의 비교를 통해 《박소촌화》소재 강감찬 이야기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갈등의 원인이 호환이라는 점은 두 이야기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용재총화》에서는 단지 ‘경내에 호랑이가 많아 관리와 백성이 많이 몰려 부윤이 걱정을 했다’¹³⁾라고 묘사되어 호랑이가 인간의 입장에서 퇴치해야 할 대상으로만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박소촌화》에서는 ‘호랑이가 중의 모습을 하고 사람을 괴롭혔다’¹⁴⁾고 하여 호랑이 또한 그 나름의 의지를 지닌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 두 집단의 의지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는 만큼 두 집단의 갈등 또한 첨예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의 해결 과정과 결과 역시 《용재총화》에서는 강감찬이 호랑이를 불러 꾸짖으니 호랑이가 강감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한 후 자기 무리

11) 《용재총화》권3, 『국역 대동야승』 I (민족문화추진회, 1969), 62~63쪽.

12) 이 이야기는 《용재총화》, 《풍암집화》(《용재총화》전제), 《기문총화》, 《해동기화》, 《시화휘편》, 《계산담수》 등에 실려있다.

13) 時府境多虎, 吏民多爲所噬, 府尹患之(《용재총화》권3, 581쪽)

14) 人皇則以虎化爲人者也. 臂力絶倫縱欲恣行 或盜人妻 民畏之而莫敢抗(《박소촌화》권3, 160쪽)

를 이끌고 부를 떠났다고 하여 별다른 대결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일화의 성격이 짙은 이야기로서¹⁵⁾ 강감찬의 신이한 능력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의 성격을 지닐 뿐 강감찬과 호랑이의 갈등 자체는 관심거리가 아닌 것이다. 반면에 《박소촌화》에서는 강감찬과 호랑이의 대결이 치열하게 그려지며 그 결과도 승패가 분명하게 갈리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강감찬은 호랑이를 찾아가 마을을 떠날 것을 명하나 호랑이는 오히려 그를 거부하고 강감찬을 죽이려 해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처음에는 힘에서 호랑이에게 밀려 죽을 위기에 처한 강감찬은 결국 활을 굽혀 간신히 호랑이의 입에 집어넣음으로써 호랑이의 입을 찢어 호랑이를 죽이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문제의 해결은 팽팽한 대결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또한 승패가 극단적으로 갈리게 되며, 패자에 대한 처벌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박소촌화》에 실린 <금주령이야기>(2-125) 또한 갈등구조가 부각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금주령이야기’는 대개 금주령을 어긴 신하를 임금에 너그럽게 용서하거나,¹⁶⁾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금주령을 어긴 백성을 관리가 자애롭게 감싸준다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기지를 드러내거나 임금과 신하 혹은 관리와 백성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이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박소촌화》의 금주령 이야기는 금주령이라는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과 그로 인한 남병사 윤구연의 죽음을 통해 비현실적인 정책과 그를 둘러싼 정치집단간의 갈등 및 폐단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본래 이 사건은 영조 38년(1762) 9월에 대사헌 남태회가 윤구연의 음주 소문을 아뢰며 파직함이 옳다는 주달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¹⁷⁾ 영조는 헌부에 명해

15) 이강옥은 일화란 “일상생활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실존한 인물에서 포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연을 언어화한 것”으로 “특별한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며 “다른 부분이나 전체와의 관련을 중시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순간성을 중시한다.”라고 하였다(이강옥, 『조선시대 일화연구』, 태학사, 1998, 42~44쪽 참조).

16) 대표적인 예가 왕명에 의해 술 석잔만 마신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김자의 이야기(《파한집》中)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이후 조선초기 윤희(《필원잡기》, 《해동야언》, 《야사회취》, 《해동잡록》, 《연려실기술》, 《동패》, 《계산담수》)·남수문(《해동야언》, 《야사회취》)·손순효(《오산설림초고》, 《동패》, 《기문총화》, 《해동기화》) 등의 이야기에까지 이어진다.

17) 『조선왕조실록』 영조조 38년 9월 5일.

윤구연을 잡아들이게 한후 선전관 조성을 보내 헌부 사람들을 앞질러 가서 숨겨놓은 술을 찾아오라고 다시 명령을 내린다. 조성이 술은 찾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는 술병을 발견해 왕에게 바치니 영조는 이 병을 근거로 윤구연을 효수한다.¹⁸⁾ 본래의 사건에서는 영조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충성스러운 무관을 죽였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 그런데 《박소촌화》에서는 상하급 관리 및 동료관리 간의 갈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금주령이 실시된 후 상급자인 윤구연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하급관료가 윤구연이 약으로 마시던 술이 금주령을 어긴 것이라고 무고하며 이에 선전관 조성이 술병을 압수하고 윤구연을 잡아들인다. 임금도 이 사정을 알고 윤구연을 구해주려고 병에서 술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평소 윤구연에게 사적인 원한을 품고 있던 조성은 자기가 병을 압수할 때는 술냄새가 심하게 났으니 물을 부어 맛을 보게 하자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신하들에게 맛을 보인 결과 몇몇 사람들이 술기운이 있다고 해 할 수 없이 윤구연을 효수해 머리를 장대에 걸어 저자거리에 내 보인다. 하지만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아야 했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도 태연히 성에 들어가 술을 팔고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후 윤구연의 죽음에 연루되었던 사람들 또한 좋지 못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다.

《박소촌화》의 금주령이야기는 다른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상하의 조화로운 관계 대신에 정책의 비현실성과 대립되는 세력의 갈등을 치밀하게 그림으로써 당대 정치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장자못 이야기>는 대개 구전되는 전설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박소촌화》또한 전체적인 줄거리는 대동소이하나, 그에 더해 경제적 곤란함 이후의 가족간의 갈등과 해체과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진주목사 아들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의 권력만 믿고 무례하게 구는 진주 목사 아들과 향반간의 갈등 및 그로 인한 하인들간의 갈등이 보여지며 그 해결 또한 하인의 죽음과 진주목사 아들의 처벌 및 도주 등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가팔 이야기> 또한 유부남과 유부녀의 애정행각을 그리고 있는데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 남편의 추적을 피해 몇 년간을 도망다니다 결국 모두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18) 『조선왕조실록』 영조조 38년 9월 17일.

끝이 난다.

이처럼 《박소촌화》 소재 이야기의 서사구조는 전대 혹은 당대 다른 문헌에 실린 이야기에 비해서 갈등구조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여타의 이야기들이 인물의 성품만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조화로운 결말을 지향하는 데 비해 《박소촌화》 소재 이야기의 서사구조는 갈등구조가 선명히 부각되고 그 해결 방법 또한 대결이 중심이 되며 결과 또한 극단적이라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고 하겠다.

2. 다양한 삽화의 나열과 유기적 합성

《박소촌화》소재 이야기는 그 서사구조 면에서 기존의 다양한 삽화를 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경우가 많다.¹⁹⁾ 이러한 경우는 다시 서로 관련성이 없는 몇 개의 이야기를 단순나열한 경우와 두 개 이상의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합쳐 한 편의 완결된 이야기를 만든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곽재우 이야기>(1-17), <고청 서기 이야기>(1-19), <이민구와 이성구의 부인 이야기>(1-59), <황상청 射覆 이야기>(2-192)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진주 박씨의 추노 이야기>(3-89), <청천강구도하사>(3-196)을 들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경우는 한 인물에 대한 기존의 여러 가지 삽화들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단순히 나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는 여러 삽화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나열을 통해서 한 인물과 그를 둘러싼 현실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곽재우 이야기>는 곽재우가 붉은 비단으로 된 옷을 입고 왜적을 물리쳤다는 삽화와 그 아버지의 용력 또한 비범치 않았다는 삽화 및 곽재우가 입은 비

19) 이강옥은 “일화란 한순간의 어느 단편적 면모를 압축서술함으로써 산뜻한 인상을 독자에게 주기에 서술자나 향유자가 보다 전면적이고 총체적 세계인식을 추구하게 될 때 일화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일화들은 일정한 관계망을 만들기 위해 서로 연결되거나 마침내 총체성을 추구하는 갈래인 소설로 전환된다”라고 하였다(이강옥, 앞의 책, 44쪽). 전래되는 각각의 모티프들이 하나의 야담 속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야담의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단은 객재우의 조부가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황제에게 하사받은 것이라는 삽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삽화들은 각각 따로 《동패낙송》에 실려 있는데²⁰⁾ 《박소촌화》에서는 이들 삽화를 하나의 이야기 속에 묶어서 다루고 있다.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객재우라는 인물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흥미 위주로 보여주기만 할 뿐이던 삽화들이 한 이야기 속에 나열됨으로써 객재우가 이미 선조대에서부터 중국의 황제가 그 뛰어난 점을 예견하였고, 객재우의 의병장 활동은 필연성을 지님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즉, 삽화의 나열을 통해 인물의 일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하겠다.

<고청 서기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릴 때의 비범함, 주인공과의 갈등과 해결, 죽은 이후의 추증 등은 기존의 문헌에서는 서로 독립된 이야기로서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박소촌화》에서는 이들 이야기를 한데 모음으로써 서기라는 인물의 일생을 부분적인 삽화의 나열을 통해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어릴 때의 남다른 비범함과 성장한 이후의 주인공과의 갈등과 해결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되며, 그 갈등과 극적인 반전은 서기가 사후에 서원에 배향되고 벼슬에 추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민구와 이성구의 부인 이야기>는 병자호란 당시 동서지간이던 두 부인의 상반된 처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중국병사에게 쫓기게 되자 동생인 이성구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고 형인 이민구의 부인은 오랑캐를 따라가다 도중에 이성구를 만나자 오히려 당당하게 이성구에게 인사를 한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하담파적록》²¹⁾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한편 《연려실기술》권26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두 부인이 실절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신할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민구의 부인은 대뜸 자결을 하면 된다고 말하고, 이성구의 부인은 죽음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나와 있다.

《박소촌화》의 저자 이동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 이야기 속에 나열함

20) 앞의 이야기는 《동패낙송》34화, 뒤의 이야기는 《동패낙송》111화에 간략히 실려있다.

21) 《하담파적록》, 『국역 대동야승』XⅧ(민족문화추진회, 1969), 489쪽.

으로써 기존의 단편적인 이야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층적인 의미를 전하고 있다.²²⁾ 이 두 이야기가 따로 존재할 때는 두 인물의 상반된 성품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의미 이상을 지니기가 어렵다. 극단적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상반되는 처신을 보여주는 두 인물의 대립적인 모습 또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해결방식 모색을 보여주는 데에 그치고 만다. 하지만 이 두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 속에 함께 나열됨으로써 생전에 너무나 쉽게 죽음을 답했던 이는 정작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삶을 선택하고, 생전에 죽음을 어렵게 말했던 이는 한계상황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모순된 모습을 그림으로써 인생의 아이러니는 물론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황상청 이야기>는 유명한 점쟁이인 황상청이 점술로 사람들을 속인다고 생각한 수령이 황상청에게 이른바 사부, 즉 물건을 가려놓고 무슨 물건인지 맞추게 하는 시험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송천필담》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실려있으나,²³⁾ 《박소촌화》에는 이 사부 시험 이야기와 더불어 황상청이 자신의 점괘를 바탕으로 도적의 소굴과 그 음모를 밝혔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열되어 있다. 이를 통해 흑세무민이라 생각하는 점복 행위가 오히려 세상에 이로움을 주기도 하며 한 인물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됨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박소촌화》의 저자 이동윤은 기존의 여러 가지 삽화들을 한 이야기 속에 나열함으로써 한 인물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그려내고, 현실의 아이러니함을 다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진주 박씨 추노 이야기>나 <청천강구도하사>는 기존의 몇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유기적으로 합성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단순한 나열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하겠다.

<진주 박씨 추노 이야기>는 진주 박씨가 갑부가 된 내력에 관한 이야기로 보은담과 풍수담과 추노담이 합쳐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가난하여 이리저

22) 단, 《박소촌화》에서는 부인들끼리 실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부인의 시부가 두 사람에게 실절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3) 《송천필담》권3,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계명문화사, 1992), 94쪽.

리 떠돌다가 진주에서 아전의 자식들을 가르치며 연명하던 박씨가 어느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홀로 잠들어 있는 승려를 구해 따뜻이 대접해준다. 그 승려는 보답하는 의미로 “주인이 나를 대함을 가만히 살피니, 어질고 사람을 사랑함이 마땅히 큰 복을 누리 이 땅의 주인이 될 만 합니다.”²⁴⁾ 라고 말하고는 발복할 땅을 점지하고 길일을 택해주면서 이 곳에 살면 수년 내에 발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박씨가 그 곳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고을 이방의 일을 도와 한 큰 섬의 호적을 살피던 중 섬 주민의 대부분이 박씨 집안의 노비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그들을 찾아가 문책하니 노비들은 노비문건을 확인한 후 “노비이면서 주인을 배반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배반하는 것과 같으니 이는 반역입니다.”²⁵⁾라고 하면서 상전 박씨에게 주노의 예를 갖추고 속전을 바친다.

조선 후기의 추노과정에서 대부분의 양반들이 오히려 추노에 실패했음을 생각할 때,²⁶⁾ 이 이야기는 보은과 풍수라는 이야기를 추노 이야기와 결합함으로써 추노와 관련한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대신에 추노의 성공을 진주 박씨 개인의 착한 성품과 신묘한 승려의 능력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신분질서가 동요되던 조선후기 양반사대부 계층인 저자의 현실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천강구도하사>는 점복담과 성군현신발탁담이 청천강을 아홉 번 건너 이야기와 합쳐져 하나의 유기적인 이야기로 재창조된 경우이다.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과거에 실패한 영남의 한 선비가 관북의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점을 부탁하려 한다. 세 번이나 찾아가 끝에 겨우 점쟁이를 만나 ‘모일 모일 밤을 새워 아무 일이 없으면 과거에 급제할 것’이라는 점괘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돌아오는 도중에 한 지방 수령의 자제가 평소 사랑하는 기생과 헤어지기가 어려워 배를 타고 강을 왔다 갔다 아홉 번을

24) 窺觀主人之待我 仁而愛人 宜享遐福 似可爲此地之主(《박소촌화》권3, 70쪽)

25) 奴而叛主若臣之背君 是逆也(《박소촌화》권3, 71쪽)

26) 조선후기에 주인이 도망간 노비를 잡았다하더라도 노비가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진위를 밝히기란 어려웠으며 쟁송을 하더라도 경제력이 부족한 주인들이 노비를 이기는 경우는 드물었다. 추쇄와 관련된 비리와 폐단이 날로 늘어나면서 조정에서는 추노를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준식, 『추노계 서사문학의 전개양상과 사회적 의미』 부산대학교 국문과 박사논문, 1998, 22~23쪽 참조.

건너는 바람에 결국 배를 제때 타지 못해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이 선비는 길을 재촉해 겨우 점쟁이가 말한 시간 안에 집에 닿는다. 밤을 새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손님이 찾아와서는 함께 술을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손님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는 이유를 묻기에 처음에는 대답을 주저하다가 결국 점괘 이야기와 집에 오는 도중에 강을 아홉 번 건너 사건을 본 이야기를 해준다. 그리고 며칠 후 과거가 열리게 되는데 시제가 ‘청천강구도하’²⁷⁾인지라 이 영남선비만이 그 뜻을 짐작하고 글을 지어 과거에 급제하게 되는 것이다.

본래 ‘청천강구도하’ 이야기는 《송와잡설》에 실려 있는 이야기이다.²⁷⁾ 성종대에 한 환관이 휴가를 받고 관서에 갔다가 돌아온 후, 임금이 환관에게 관서에 다녀오는 길에 보고 들은 일이 있는지 묻자 청천강을 아홉 번 건너 일을 이야기한다. 환관은 한 만호가 방지기와 차마 작별하지 못해 서로 배웅하느라 강을 아홉 번이나 건너더라며 그 만호의 이름을 말해주었고, 이후 그 만호가 변장의 물망에 오르자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낙점을 했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만호와 하급적인 방지기 사이의 깊은 정과 그를 아름답게 여긴 임금의 덕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점괘와 그 실현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점복담은 ‘이해할 수 없는 점괘 - 실현’이라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동운은 이러한 단편적인 삽화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유기적으로 합치고 있다. 전체 구조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한 선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점을 부탁하고 결국 그 점괘가 실현된다는 점복담의 구조를 가진다. 그러나 그 점괘가 실현되는 방법으로는 종래에 많이 전해져오는 임금의 신하발탁담이 수용되고 있다. 그리고 ‘강을 아홉 번 건너 이야기’가 그 발탁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결과 중심적이고 흥미 중심적이라면, 이러한 유기적 합성을 통해 이동운은 한 인물의 문제 해결 의지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동운은 기존의 다양한 삽화를 하나의 이야기속에 유기적으로 녹여냄으로써 조선후기의 변모하는 상황을 좀더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삽화의 나열과 유기적 합성은 조선후기의 야담

27) 《송와잡설》, 『국역 대동야승』XIV(민족문화추진회, 1969), 216쪽.

이 전대 문학의 전통을 어떻게 이어받아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서술

《박소춘화》 소재 이야기들은 그 서사구조 면에서 갈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단편적 삽화의 나열을 통해 좀더 종합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서술방식 면에서도 전대 혹은 당대의 다른 문헌에 실린 이야기와는 특징적인 면모를 보인다.

일화는 한 순간 보여지는 한 인물의 단면적 성품을 보여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화는 순간적이고 결과중시적이며 인물들간의 세밀한 갈등이나 각 인물들의 섬세한 내면심리 등은 문제삼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박소춘화》에서는 두 세력의 팽팽한 대결이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술 또한 좀더 상세하고 입체적인 양상으로 바뀌게 된다. 즉, 《박소춘화》의 이야기들은 한 사람의 특징적인 성품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인물의 입체적인 성격을 보여주며 한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들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박소춘화》의 이야기들은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준다. <고창 서기 이야기>에서 서기와 주인과 사위의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은 소설에 가까운 정도로 치밀하다. 서기가 주인에게 매를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장면에서 피범벅이 되어 정신을 잃은 서기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상세하게 그려지며 사위가 한달 노비인 서기의 석방을 부탁하며 파혼까지 입에 담은 장면에서 장모의 고민과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잘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사위가 서기를 찾아가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를 풀어주고 유관을 썩워주는 과정 또한 단순히 서기가 풀려났다고 서술 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 하나하나와 그들이 주고 받는 대사가 모두 상세히 그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신분의 제약에서 고통받는 하층민의 수난과 신분적 질서 속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에 상관없이 한 개인의 능력을 알아본 이의 진솔한 교류가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를 해친 호랑이와 싸운 효자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로 모습을 보인다. 호

랑이와 싸운 효자의 이야기는 《박소춘화》이전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오나 대개의 이야기는 호랑이가 부모를 죽이고 그를 쫓아가 복수를 했다는 간단한 서술로 끝이 난다. 목숨을 걸고 호랑이와 싸울 정도로 효성이 강하다는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데 그 과정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컨대, 《송와잡설》에는 부인이 남편을 잡아간 호랑이를 끝까지 따라가 결국 남편의 시체를 구하는 이야기가 있다.²⁸⁾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범과 밤새도록 싸웠고 범은 밀치락달치락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그냥 버리고 가 버렸다’²⁹⁾는 간단한 문장으로 당시의 상황이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박소춘화》에 수록된 이야기는 호랑이와 사람의 대결 과정을 좀더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시부의 시체를 구한 며느리>(3-109)에서는 호랑이가 시부를 물고간 정황과 시부가 도망을 치지 못한 이유, 그리고 며느리가 이 호랑이를 쫓아가 호랑이가 흘리고 간 조각난 시신을 차례차례 수습하다 온전한 시신을 찾지 못해 밤새 숲 속을 헤매며 호랑이를 찾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가 있는 곳을 찾아 크게 소리 질러 결국 호랑이가 며느리에게 굴복하고 며느리는 시신을 되찾아오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호랑이와 싸운 윤장금 이야기>(3-110) 또한 마찬가지이다. 밤에 호랑이가 내려와 윤장금의 아버지 윤상선을 물고 가려 하자 윤장금과 그 모친이 호랑이로부터 상선을 구하려 한다. 이에 호랑이가 다시 윤장금을 물자 모친은 호랑이를 물어뜯고, 호랑이가 다시 윤장금을 버리고 모친을 무니 장금이 이때를 타 호랑이를 때려죽인다. 밤새 벌어진 윤장금 가족과 호랑이의 대결과정은 그 자체로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동윤은 단순히 효성스러운 성품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처절한 대결양상과 인간의 승리 과정을 구체적인 장면 묘사를 통해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구조의 부각에 따른 입체적인 서술은 단순히 대결과정의 상세한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반동 세력의 목소리 또한 함께 그려내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충노 성발 이야기>(1-153)인데, 이는

28) 《송와잡설》, 『국역 대동야승』XIV(민족문화추진회, 1969), 177쪽.

29) 與虎終夜相關 虎或進或退 天將明乃棄去 (《송와잡설》 33쪽)

저자 이동윤의 증왕고 양정공대에 있었던 역노 모녀 명옥, 점덕과 그를 다스린 충노 성발에 대한 이야기이다. 노비 명옥과 점덕은 양정공의 후취 민씨를 모해하기 위해 흉물을 묻고 저주를 하다 결국 발각이 나 옥에 갇히게 되고 양정공은 노비 성발에게 이들을 지키게 한다. 그러나 명옥, 점덕이 탈출하여 도망가게 되고 성발은 이들을 뒤쫓아 결국 다시 잡아오게 된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역노에 대한 정치와 충노에 대한 보상이라는 간단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동윤은 성발의 추적과 충성스러운 성품을 보여주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반동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명옥과 점덕의 행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탈출을 했고 어떻게 도망을 다녔으며 왜 민씨를 저주하게 됐는지를 빠트림없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상전과 노비의 갈등 양상이 상전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 세력이 동등한 비중을 갖고 팽팽하고 입체적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이동윤의 작가의식은 성발의 충성스러움을 부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품 자체는 이러한 작가의식과는 관계없이 조선후기의 변화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동윤은 인물을 묘사하는 과정에서도 한 인물의 특징적인 성품을 단면적으로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인물의 입체적인 성격을 말과 행동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귀 이야기>(1-98)는 이귀의 집에 좋은 목단이 있었는데 임금이 이를 가지고 싶어하자 임금의 사육을 경계한 이귀가 거리낌없이 나무를 베어 버렸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송천필담》³⁰⁾에도 거의 흡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동윤 전대는 물론 당대에 많이 회자되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송천필담》이 이귀의 사리사욕 없는 마음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데 비해, 《박소촌화》에서 이귀는 나무를 베어버리면서도 한편으로 좋은 나무가 없어지는 걸 무척 아까워하다 뿌리를 살려 다시 시골에 옮겨 심고 있다. 단지 사리사욕이 없는 평면적 성품이 아니라, 임금에게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무를 아까워하는 마음 모두를 가진 입체적인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0) 《송천필담》권2, 정명기편, 『한국야담자료집성』18(계명문화사, 1992), 273쪽.

<김육과 동양위 이야기>(3-137)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이야기는 《매옹한록》에도 실려 있는데,³¹⁾ 가난한 김육과 동양위 신익성이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진정한 우정을 이어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매옹한록》이 이 두 사람의 우정 자체를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다면, 《박소촌화》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가난하기 때문에 양반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이집저집 다니며 농사일을 도와야 했던 김육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과 그로 인한 갈등, 마음과는 다른 신익성에 대한 냉담함 등이 김육과 신익성의 대화를 통해 입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조상태 이야기>(3-167)는 이인담의 구조를 지니는데, 조상태의 일생과 그의 비범한 행적을 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이인담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기존의 이인담이 대체로 이인들의 신이한 행적을 흥미롭게 보여주거나 속세를 벗어난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 데 비해 이동윤은 조상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린다. 조상태는 한편으로 나라에 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해 과거도 보지 않고 고향에 은거하면서 술법서와 기문둔갑술, 병법서등을 다양하게 익힌다. 그러나 자신의 예견과는 달리 국가는 큰 위기 없이 계속 존립하고, 말년에 조상태는 ‘자신이 더 현명해 이런 상황을 내다볼 줄 알았다면 과거를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현재 자신의 궁벽함은 모두 자신이 초래한 일’³²⁾이라며 스스로의 생애에 대해 후회하는 말을 남긴다. 이인에 대한 단순한 흥미 위주의 서술에서 벗어나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겪는 내적인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동윤은 한 인물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보다 입체적이고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바 이는 전대 혹은 당대 문헌에 실린 다른 이야기들과는 구별되는 《박소촌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검녀>(3-56)같은 이야기를 통해 이동윤은 한 사건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좀더 폭넓게 다루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검녀>라는 이야기는 아녀자가 남장을 하고 무술을 익혀 부친 혹은 주인을 죽인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으로

31) 《매옹한록》, 동국대학교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헌실화전집』8(태학사, 1991), 602쪽.

32) 盖由所業未及透一關故也 若如晚年所識即豈其然哉 都使自己身世窮而止而已 亦可少也(《박소촌화》권3, 142쪽)

《삼교만록》, 《잡기고담》에도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상당한 관심거리가 된 사건이 이야기로 전해지다 문헌에 정착된 것으로 짐작된다. 구체적인 인물이나 원수를 갚는 방법이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인 줄거리는 세 문헌이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삼교만록》에서는 원수를 갚았다는 사실은 후일담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되고 오히려 여종이 정시한에게 진정한 선비의 자세를 설교하는 부분이 더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잡기고담》에서는 원수를 갚았다는 사건 자체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반면에 《박소춘화》는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서사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그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반응과 이후의 정황이 좀더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예컨대 마포의 정자 주인을 찾아온 정채 불명의 두 여인이 하는 다양한 수수께끼적인 행동과 그 이유를 차례차례 하나씩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지속시키며, 이 두 여인의 최후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하는 대신 '벼랑에 신발이 놓여있었다'고 함으로써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의 결말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들의 복수와 자결에 대해 무관심했던 정자 주인이 집안이 불행해졌다고 함으로써, 이 여인들의 의기투합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여인들이 겪은 사건을 사회적인 연계성 속에서 바라보고자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동윤은 전대로부터 내려오던 단편적인 이야기 혹은 당대에 널리 구연되던 이야기들을 널리 수용하되 단순히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립하는 두 세력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그리거나, 한 인물의 복합적인 내면심리를 대화와 행동을 통해 보여주거나 한 사건을 둘러싼 정황을 보다 자세하게 그리고 그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좀더 깊이 있게 탐구하는 등 입체적인 서술을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Ⅲ. 《박소춘화》의 야담사적 의의

지금까지 《박소춘화》 소재 이야기가 서사구조와 서술방식 면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박소춘화》가 지니는 야담사적 의의를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박소촌화》의 저자 이동윤은 상당한 서사지향의식을 지니고 잡록집적인 성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18세기의 많은 야담집들은 장르적인 복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박소촌화》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저자 이동윤은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서사지향의식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교술갈래인 <간양록>(1-38)³³⁾이나 <담현연기>(3-67)³⁴⁾를 수용한 작품은 본래의 내용을 그대로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진 사건들을 다시 정리해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처음 - 중간 - 끝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있다.

저자가 견문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저자의 서사지향의식은 잘 나타난다. 이동윤은 흥미 위주의 단편적인 사실들을 단순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의 전후 맥락이나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추적하여 처음-중간-끝의 구조를 가진 완성도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예컨대, <금주령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 금주령의 부당함을 지적하다 유배가는 도중 화재로 죽은 대간 이민곤의 이야기나³⁵⁾ 윤구명의 안타까운 죽음 및 무고를 한 관리의 처벌 등이 단편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동윤은 이런 단편적인 기사들을 뚜렷한 스토리를 갖춘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함으로써 조선후기 현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가팔이야기> 또한 한 마을에서 일어난 정사 그 자체의 흥미에 파묻히지 않고 그들이 왜 그렇게 죽을 수 밖에 없는가를 알아보고 정사에

33) <간양록>의 발췌한 작품의 경우, ‘涉亂事迹’, ‘敵中聞見錄’, ‘敵中奉疎’, ‘檄告俘人’ 등의 여러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곳저곳에 흩어져있는 관련사항을 한곳에 모아 일관성있게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사건을 재편집하고 있다. 예컨대, 피로 과정과 탈출과정은 ‘적중봉소’와 ‘섭란사적’에 모두 서술되어 있고 두 항목은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이동윤은 이들 두 항목을 비교해 한 편의 글 속에 체계적으로 서술해놓았다. 일본인 舜首座란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본래는 ‘적중문견록’과 ‘섭란사적’에 함께 서술되어 있는데 이를 이동윤은 한데 모아 서술하고 있다.

34) 이동윤은 홍대용이 潘庭筠·嚴星과 변발, 삼학사의 죽음, 청음선생 시집 등에 대해 나눈 필담과 중국의 왕자를 만난 사건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변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에서는 홍대용과 두 학사가 농담 삼아 변발의 의의를 인정한 데 반해 변발을 반대하는 어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동윤의 존명배척 사상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이병직 및 조선옥의 논문 참조.

35) 『조선왕조실록』 영조조 32년 10월 19일.

관련된 여러 정황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18세기 야담집이 대체로 잡록집의 성격이 강하며 《박소촌화》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특징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³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소촌화》의 저자 이동운은 서사지향의식을 지니고 기존의 작품이나 보고들은 이야기들을 서사적인 작품으로 재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잡록집에서 야담집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박소촌화》는 경험지향과 허구지향이 공존함으로써 한 개인의 경험 이 완성도 있는 허구적인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8세기 야담집의 특징 중 하나는 저자의 견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야기판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경우 그 정황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그 이야기의 사실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않게 나타난다.

이처럼 당대의 다양한 견문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한편으로 서사장르의 소재적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야기판이 그대로 기록됨으로써 하나의 이야기가 원래의 발생 현장을 넘어서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이야기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경험지향의 경향이 크면 클수록 이야기의 현장감은 높아질지언정, 허구적이고 완결된 이야기를 통해 당대 현실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게 새로운 전망을 담아내는 가능성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18세기의 여타 야담집들과 비교해볼 때 《박소촌화》 또한 이러한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교만록》《학산한언》《매옹한록》《잠기고담》 등의 야담집들에 수록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경험지향적인 경향이 훨씬 강해 이야기 자체를 입체적이고 허구적으로 꾸미기보다는 이야기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박소촌화》에서는 이야기를 해

36) 이에 대해서 조선옥은 《박소촌화》에 실린 사실에 바탕을 둔 기록들은 “인물 간의 대화, 대립을 통한 갈등의 장면적 제시 등을 통해 흥미를 더해줌으로써 야담으로 발전해 가는 18세기 잡록류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한 바 있다(조선옥, 앞의 글, 105쪽).

준 사람은 제보자 정도의 위치에 그친다. 이야기 자체를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말미 혹은 첫머리에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을 밝힐 뿐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상황 자체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이야기판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박소춘화》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허구성을 강하게 지닐 수 있는 바, 예컨대 많은 야담집에 수록된 <박언립 이야기>의 경우 유독 《박소춘화》는 기존의 이야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는 한편 다양한 삽화를 널리 받아들여 새로운 이야기로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다.³⁷⁾ 이러한 허구지향성의 확대는 야담이 구연되는 이야기의 단순기록에서 벗어나 당대 현실을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허구적인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박소춘화》에 실린 이야기들은 조선 후기 야담의 장르 모색 및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야담이 조선후기 단형서사체의 중요한 갈래중 하나임을 생각할 때, 전대의 다양한 단형서사체들을 어떻게 계승 변용함으로써 야담이라는 갈래가 형성되어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조선후기 서사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소춘화》에 수록된 단형서사체들을 전대 혹은 당대의 여타 문헌에 수록된 작품들과 비교해 본 결과 그 결과 이들 이야기는 서사구조면에서 갈등구조를 선명하게 부각시켜 조선후기의 변화하는 현실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전대의 다양한 단편적 이야기를 한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용하여 현실을 종합적으로 그려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서술면에서도 단면적이고 결과중심적인 서술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심리와 사건의 전개 및 해결과정, 사건을 둘러싼 정황을 입체적으로 그림으로써 당대 현실을 좀더 총체적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대의 단형서사체가 어떻게 야담

37) <박언립이야기>에 대해서는 정준식, 「‘박언립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참조. 정준식에 따르면 <박언립이야기>는 《학산한언》계열, 《난실만필》계열, 《박소춘화》계열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박소춘화》는 이시백이 이귀로 바뀌고 혼인삽화와 반정삽화만이 나타나며 거사 일시를 정하는 대목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작가의 적극적인 개작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으로 변모되어가는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단서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그 점에서 《박소촌화》는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IV. 마무리

지금까지 《박소촌화》에 수록된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그 이야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며 그것이 지니는 야담사적인 의의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 보았다. 저자 이동윤은 전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갈등구조를 부각시키고 다양한 이야기의 합성을 통해 새로운 서사구조를 창출하며 입체적인 서술을 통해 변모하는 현실을 다층적으로 그려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박소촌화》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잡록집에 머무르지 않고 서사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후 야담으로서 정제된 작품이 주로 실리는 19세기 야담집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경험지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여줌으로써 현장의 이야기판에 매이지 않고 이야기자체가 허구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고, 전대 이야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사구조와 서술방식 면에서 변화를 꾀함으로써 조선후기의 새로운 단형서사장르로의 발전을 모색했다. 요컨대, 조선 후기 야담집이 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기록에서 허구성을 가미한 완성도있는 야담 창작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박소촌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앞으로 조선후기에 다양한 야담집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대 혹은 당대의 이야깃거리를 다양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장르를 형성해갔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박소촌화》의 문학사적 위치가 좀더 뚜렷해질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박소촌화, 서사형식, 야담

참고문헌

1. 자료

- 姜沆, <看羊錄>, 《해행총제》Ⅱ(민족문화추진회, 1974)
- 金時讓, 《荷潭破寂錄》, 『국역 대동야승』XⅦ(민족문화추진회, 1969)
- 盧命欽, 《東稗洛誦》, 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아세아문화사, 1996)
- 朴亮漢, 《梅翁閑錄》, 동국대학교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헌설화집 요』8(태학사, 1991)
- 成倪, 《慵齋叢話》, 『국역 대동야승』Ⅰ(민족문화추진회, 1969)
- 辛敦復, 《鶴山閑言》, 동국대학교부설 한국문학연구소 편, 『한국문헌설화집 요』8(태학사, 1991)
- 沈緯, 《松泉筆譚》, 정명기편, 『한국야담자료집성』18·19(계명문화사, 1992)
- 李暨, 《松窩雜說》, 『국역 대동야승』XⅣ(민족문화추진회, 1969)
- 李東允, 《樸素村話》(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 任邁, 《蘭室漫筆》, 정명기편, 『한국야담자료집성』12(계명문화사, 1987)
- 洪大容, <湛軒燕記>, 《湛軒書》Ⅳ(민족문화추진회, 1974)

2. 저서 및 논문

- 김상조, 「필기·패설·야담」, 정명기 편저,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Ⅰ(보고사, 2001)
- 김현룡, 『한국문헌설화』1~7(진국대출판부, 1998~2000)
- 서대석 편저, 『조선조문헌설화집요』Ⅰ·Ⅱ(집문당, 1991)
-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어문학자료-문학편해설Ⅱ』(태학사, 2001)
- 이강옥, 『조선시대 일화연구』(태학사, 1998)
- 이내중, 「필기의 특성과 유형」, 정명기 편저,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Ⅰ(보고사, 2001)
- 이병직, 「李東允의 사상과 《樸素村話》의 저작 動因」, 『문창어문논집』39집(문창어문학회, 2002)
- 이우성·임형택 역편, 『이조한문단편집』 상·중·하 (일조각, 1978)

- 정명기, 「야담 연구에서의 자료의 문제」, 『한국문학논총』 제26집(한국문학회, 2000)
- 정준식, 『추노계 서사문학의 전개양상과 사회적 의미』(부산대학교 국문과 박사 논문, 1998)
- 정준식, 「‘박언립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한국문학논총』 제29집, 한국문학회, 2001)
- 정준식, 「《박소촌화》의 저자와 저작연대」, 『어문연구』 39집(어문연구학회, 2002)
- 조선옥, 「《박소촌화》의 텍스트 생성에 관한 연구」, 『문창어문논집』 39집(문창어문학회,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Form of 《Baksochonhwa》

Ha, Mi-Kyong

The Narrative form of 《Baksochonhwa》 can be summarized as below ;

First, Lee dong - yun, the writer of 《Baksochonhwa》 strengthenend the structure of complications, in comprison with other books of Yadam. Characters have firm belief, so complications happen not by chance, but necessarilly. The way to solve complications is severe and furious, and punishment of a loser is very cruel.

Second, Lee dong - yun, the writer of 《Baksochonhwa》 created new stories by joining many previous stories. He arranged some independent stories in a row, or comebine some stories organically. By this way, he not only showed a slice [phase] of social life, but also represent the whole figure of society.

Third, Lee dong - yun, the writer of 《Baksochonhwa》 represented the character of a person in three dimensions, depict the process of origination and solution of complications, and show many circumstancases about an incident.

In these ways, the stories of 《Baksochonhwa》make foundation that Jabrockjip, a book of various genres could become refined books of Yadam. by an effort to free itself from experience-intention, the story couldn't limit itself in a place of story-telling, but evolve a fictitious story. And the stories of 《Baksochonhwa》 show the process that many previous short stories become Yadam.

Key words: 《Baksochonhwa》, Narrative form, Yadam